



4면 전북대 약학관, 문 열다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농생명산업 지속가능성 활로 모색

### 전북자치도 대표단 네덜란드 공식 방문 산업 육성 협력 논의

### 스마트 농축산업 마이크로바이옴 등 선진기술 현장 시찰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산업 육성의 지속가능한 활로를 찾기 위해 네덜란드와의 협력 추진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신산업 육성과 공공외교 활동을 위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해 농생명 산업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김 지사 등 대표단은 발케넨더(Jan P. Balkenende) 네덜란드 전 총리가 의장으로 맡고 있는 '네덜란드 지속가능성장연합(DSGC), 스마트 농축산 기업 Lely(렐리)사, 레이덴 생명과학 클러스터(LBSP)를 찾아 시설 선진기술 현장 시찰하며 협력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헤이그에서 발케넨더 네덜란드 전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속 가능 성장에 대한 한국과 네덜란드 지방정부 및 기업의 역할과 유네버 등 연합 소속의 네덜란드 농생명 대기업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케넨더 의장은 네덜란드 제49대 총리 재임 당시(2002~2010년)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여러 차례 수립했으며, 퇴임 후에는 기업과 협력하는 지속 가능 성장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간담에서 발케넨더 전 총리는 김 지사가 제시한 전북의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과 농생명 산업 수도 조성 특례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전북자치도 대표단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네덜란드 대표 스마트 축산 기업인 Lely(렐리)사와 네덜란드 최대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레이덴 바이오 사이언스 파크(LBSP)를 잇따라 방문해, 지속가능한 농생명 신산업 확대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대표단은 지속가능한 농생명 신산업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대표 스마트 축산기업인 Lely(렐리)사 찾아 하이스 솔만 COO로부터 산업 전망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자동 착유로봇, 자동 사료급여기 등의 R&D 센터 및 전시장을 시찰하고 있다.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렐리의 하이스 솔만 COO로부터 산업 전망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자동 착유로봇, 자동사료급여기 등의 연구개발(R&D) 센터 및 전시장을 둘러 봤다.

김 지사는 지난 1969년 국내 최초로 치즈를 자체 생산한 전북 임실을 예로 들며, 전북이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축 산업 혁신의 구상을 공유했다.

도는 지난달 27일, 국내 최초 '동물복지 미래 목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풀무원,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과 체결한 데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낙농업 공동 연구개발 협력과제 발굴에 노력할 계획이다.

유럽 최초로 1984년 조성된 레이덴 생명과학클러스터(Leiden Bio Science Park)는 200여 개의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된 네덜란드 최대 생명과학 클러스터로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분석 인프라와 창업 네트워크 조성을 활성화하고 있다.

대표단은 에스더 피터스 LBSP 이사로부터 클러스터의 조성 과정과 운영 노

후를 청취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센터(CMAT)와 분변 기증 은행(NDFB)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대병원 마이크로바이옴임상지원센터, 순창 유용 미생물은행(2024년 예정), 마이크로바이옴 지식산업센터(2026년 예정) 등 전북의 마이크로바이옴 산학연 생태계를 소개하고 LBSP의 분석과 케이푸드(K-food) 입상의 연구 공유, 창업 생태계의 협력을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네덜란드 방문을 통해 한-네덜란드 간 기존 협력의 틀을 넘어 새로운 영역의 농생명 협력 동력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 전북의 선도적인 인프라와 K-food 본류의 특장점을 발판으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지난 5년 지방정부 편성 못 쓴 예산 294조원 육박

### 민주 한병도 의원 "제3차 감사의견 제출 방안 도입을"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 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8.9조원 △전남 7.6조원 등 순이었고, 이월액의 경우 △경기 33.8조원 △경북 19.1조원 △전남 14.6조원 △서울 13.6조원 △강원 12.6조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연례적·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예산 등 감축을 위해 재정 집행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신속 집행을 추진 중이다. 밝혔으나 현실은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재정 불용·이월의 반복은 지자체 결산 감사 취약성에 기인한다"며, "광역자치단체 의회 중 선임한 결산 감사 위원 총 194인 중 지방의원과 전직 공무원이 101인(52%)인데 반해, 공인회계사는 37인(19%)에 불과해 결산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다음 예산 편성의 기초 역할을 하는 지자체 결산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회계법인 등 독립 제3자가 감사 의견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결산 결과를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방정부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익산=이재훈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개 회계연도(2018~2022)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총 불용액이 119조원, 이월액이 1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용·이월액의 5년치 총계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경기 67.5조원 △서울 30.4조원 △경북 28.7조원 △경남 24.9조원 △전남 22.2조원 △강원 18.2조원 △충남 18.0조원 △전북 15.5조원 △인천 13.8조원 △충북 13.3조원 △부산 11.8조원 △대구 8.7조원 △광주 5.9조원 △대전 4.9조원 △울산 4.6조원 △제주 3.7조원 △세종 1.7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의 5년치 총계는 △경기 33.6조원 △서울 16.7조원 △경북 9.5조원

## 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석 전까지 지급

### 지난달 23일 확정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어가를 대상으로 60만 원씩 지원하는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난달 23일 최종 확정, 9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약 12만 농어가가 신청해 자격검증 등을 통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농업직불성 사업 예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민 공익수당, 시군 자체 직불금 등 총 12개 사업에 6,015억원을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만호기자

## 전북자치도민체육대회, 6일 순창공설운동장서 8일까지... 2만5000여명 참가

### 8일까지... 2만5000여명 참가

180만 도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 순창공설운동장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체전으로 '행복담는 순창에서, 함께 여는 특별자치도'라는 슬로건으로 6일부터 8일까지 14개 시군 체육인과 임원 1만여명, 방문객 1만5,000여명 등 2만5,000여명이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도민체전 개최식은 순창공설운동장에서 오는 6일 저녁 6시부터 식전공원이 시작되며 입장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 식전 공연으로는 K-pop댄스, 풍물, 국악, 태권도 공연이 진행된다. /순창=이양희 기자

공식행사는 저녁 7시부터 개식공고,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환영사, 대회기 게양, 선수단과 심판대표의 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입장과 최종주자의 성화 점화가 이뤄지고, 드론라이트쇼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한다.

공식행사가 끝난 저녁 8시 50분 이후에는 이찬원, 프로미스나인, 코요태, 양지은, 강문경, 힌(박혜원) 등 인기 가수의 축하공연이 이어져 개회식의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한편, 도민체전 30개 경기종목 중 검도 등 12개 종목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날 1일까지 사전경기로 진행됐으며, 육상 등 27개 종목은 6일에서 8일까지 진행된다. /순창=이양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2024.9.6.(금) - 9.8.(일) 3일간 | 순창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개회식 9. 6. (금) 19:00 / 순창 공설운동장

이찬원, 양지은, 코요태, 강문경, 힌, 권(박혜원)

주최 |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 주관 | 순창군 체육회 • 후원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군